【 해외금융뉴스: 일본 】

생보업계, 실적 악화로 재편 움직임 본격화

□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경제 침체 장기화로 주요 9개 생명보험회사들의 2009년 1~3월 실적이 예상치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.

o 올해 상반기까지 주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9개 생명보험회사들의 유가증권 평가손은 1조 7천억을 상회해 총이익은 전년동기대비 약 7조 3천억엔 감소하는 등 생명보험회사들의 경영상태가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.

□ 경영상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생보업계는 판매 채널 다양화에 힘쓰는 한편, 경영통합을 통한 재편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양상임.

o 금융위기 이전부터 고령화 및 경기침체로 인해 생보업계의 주력 상품인 사망보험을 필두로 생보시장 축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, 기존의 주요 판매 채널인 대면판매 영업이 한계에 봉착하는 등 고객들의 다양해진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었음.

o 이에 메이지야스다생보는 올해 2월부터 인터넷 전용 판매 대리점과 제휴하고 있으며, 미츠이생명과 스미토모생명도 인터넷 전문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를 공동 출자해 만들기로 하는 등 생보업계는 방카슈랑스 성공에 이어 인터넷 및 모바일을 신규 판매 채널로 적극 활용하고 있음.

o 한편, 중견 생명보험사인 제일생명은 내년 4월에 예정된 주식회사 전환의 주요 목적이 적극적인 M&A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이라고 천명한 바 있으며, 메이저 생명보험회사 중 하나인 일본생명도 최근 경영통합을 포함한 전략적 투자를 위해 약 천억엔 규모의 자본증강 계획을 밝힘.

o 또한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AIG가 매각 교섭을 진행 중인 자회사 아리코재팬 등 외국계 생명보험회사들의 향후 행방 또한 생보업계 재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음.

(FujiSankei Business I · 마이니치신문 5/30)